

부회장이 되다

김소정

2022년 9월 1일 목요일

날씨: 폭폭 찌는 무더위가 아직도 이어짐.

“김소정, 1표.”

“박효비, 1표.”

이름이 불릴 때마다 칠판에는 작대기가 하나씩 그어졌다. 너무 떨려서 눈을 제대로 뜰 수조차 없었다. 쿵쿵쿵쿵 심장 뛰는 소리가 교실 뒤에 앉은 친구에게까지 들릴 정도였다. 이번에는 꼭 부회장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했기에 공약을 정할 때도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 모른다.

사실 나는 회장단을 뽑는 3학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회장, 부회장이 된 적이 없다. 그래도 나는 깨끗하게 매 학년, 매 학기마다 회장, 부회장이 되기 위해 출마하였다. 그런 나를 보고 동생은 “혹시, 누나 아싸 아니야?”라고 놀리기도 했다. 엄마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출마하는 나를 보고 “ 깨끗한 의지의 한국인!”이라고 말씀하시기

도 했다.

4학년 때는 단 한 표를 받은 적이 있었다. 그 한 표마저도 내가 짝은 것이다. 한 표를 받았을 때는 많이 부끄러웠다. 나에게 표를 주겠다고 약속한 친구가 배신을 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기도 했다.

그동안 가장 많이 받은 게 단 3표였으니 동생 말처럼 ‘내가 정말 아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 적도 많았다.

새 학년이 되면 모범생으로 보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친구들과 잘 지내려고 억울한 일이 생겨도 화도 내지 않았다. 그뿐 아니다. 솔선수범을 하는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해 교실에 나뉘구는 쓰레기도 주웠다. 하지만 이런 나의 노력은 거의 물거품이 되었다. 어쩌면 친구들이 나의 시커먼 속마음을 다 읽었을지도 모르겠다.

때로는 회장이 된 친구를 질투하기도 했다. 『15소년 표류기』에 나오는 브리앙을 질투하는 드니편처럼 말이다. 어떤 회장이 좋은 회장일지 고민해 보기도 했다. 하지만 나의 고민은 쓸데없었다. 회장이 되지 못했기에.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다. 예전처럼 회장이 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모범생 흉내를 내지 않았지만 나의 장점을 칭찬해 주는 친구가 많아졌다. 무엇이든 열심히 한다고 선생님에게 칭찬도 많이 받았다. 그래서인지 왠지 모를 자신감이 화산처럼 솟아났다.

회장단을 뽑는다는 선생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그날부터 나는 공약을 정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했다. 우리 반 친구들은 어떤 회장, 부회장을 좋아할지 생각해 보았다. 흔해 빠진 “우리 반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는 회장이 되겠습니다.”라는 공약은 하고 싶지 않았다. 좀 더

특별하고 친구들이 환영할 만한 공약들이 필요했다. 그리고 친구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연설문을 만들기 위해 시험공부를 할 때보다 더 늦은 시간까지 고민을 붙잡고 있었다.

솔직히 나는 회장이 될 자신은 없었다. 왜냐하면 우리 반에는 인기 만점인 친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 친구는 나와는 달리 3학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회장이 안 된 적이 없는 친구이다. 그래서 나는 부회장에 나가기로 결심했다. 부회장의 역할도 회장의 역할 못지 않다고 생각했다.

연습을 그토록 많이 했지만 앞에 나가 부회장 연설을 막상 하려고 하니 머릿속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했다. 꼭 어려운 시험을 치는 기분이었다.

“흥부의 집에 주렁주렁 열린 행운의 박을 가져다준 제비처럼 우리 반에 행운을 가져다주는 부회장이 되겠습니다. 슬근슬근 톱질하세요.”

나는 박을 타는 흥내까지 내며 연설문을 무사히 마쳤다. 나의 연설이 재미있었는지 친구들의 박수와 호응이 그 어느 때보다 우렁차게 들렸다.

“김소정, 1표!”

마침내 내가 효비보다 많은 표를 받아 부회장이 되었다. ‘부회장 김소정’이라는 말에 눈물이 울컥 나올 뻔했다.

나는 우리 반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주렁주렁 행운을 가져다주는 부회장이 될 것이다.